

생의학산업 벨트를 가다 화순

3 산양삼 프로젝트

모후산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산양삼 화순 대표 특산물 육성

“고려인삼이 처음으로 재배된 화순 모후산은 산양삼이 자라기 좋은 토질과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순군 산림소득과 이민규(35) 씨는 모후산 자락의 흙을 한줌 쥐었다가 펼쳐 보여준다. 10~15% 정도의 점질 토양이어서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부엽토로 영양분이 많고 보습이 잘 되며 잔뿌리가 뻗어나가기에 좋다고 설명한다.

화순군 남면과 동북면에 걸쳐있는 모후산 자락. 등산객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산비탈에 산양삼(山養蔘) 종자채취를 위한 채종(採種) 포장이 마련돼 있다. 나무그늘에는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자그마한 산양삼들이 5장 잎을 펼치고 꽃대에 15~20개의 열매를 곧추 세우고 있다. 아직은 채 익지않아 초록빛깔이다. 7~8월에 빨갱게 익으면 이를 채취해 다시 심는데 씨앗 1kg이면 1만본의 종자를 심을 수 있다.

산양삼을 화순 대표 특산물로 육성=화순군은 지난 2007년부터 옛 동북 삼의 명성을 되찾고 산양삼을 화순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선 검증을 거친 '제대로 된' 산양삼 씨앗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모후산 자락에 채종포 단지를 조성했다. 2007년에 3.3ha(4만6천본), 2008년 6.6ha(3만본)를 심었고 올해는 가을에 3ha 등 총 12.9ha(10만6천본)를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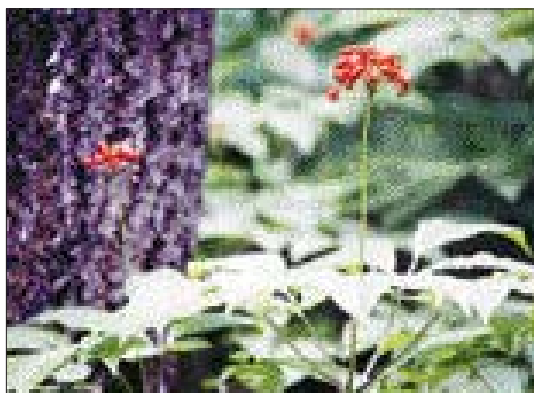
산양삼을 산에 파종하거나 2년근을 옮겨심어 자연 상태에서 키운 산양삼은 항암 효과와 원기 회복, 혈압 개선 등에 탁월해 '신비의 약초'로 알려져 있다. 산양삼이 반양반음(半陽半陰)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남향보다는 북향이나 동북향이 좋고 산죽(山竹) 등이 있어 적당한 그늘과 서늘한 바람이 있는 곳이 재배적이다.

특히 산양삼은 토양·수분·온도에 민감하다. 강한 비바람을 맞으면 성장을 멈춰 휴면(休眠)상태로 들어가는 특성 때문에 재배가 까다롭다. 화순지역에서는 현재 24 농가가 115ha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 6년근 인삼이 비싼 것과는 달리 8년 이상이 돼야 상품가치를 지닌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지난 2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을 위한 국제 산삼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봉우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교수는 “조선시대 ‘중경지’, ‘중보 문헌비고’ 등을 보면 고려인삼을 처음 재배한 곳은 ‘화순 동북 모후산’이라는 기록이 나온다”면서 “동북에서 시작된 인삼재배 기술이 1800년대 들어서 개성으로 전파됐다”고 밝혔다.

토양·기후·수분...재배 최적지
채종포 단지 조성 산업화 박차
2012년까지 16ha 테마공원도



위로부터 붉은 열매가 맺힌 산양삼. 산양삼 재배지의 부엽토, 수확한 산양삼.

이후 개성에서 인삼재배가 성행하자 동북은 쇠락해졌다가 1900년대 초에 개성의 인삼기술자를 초청해 다시 재배에 나섰다. 일제 강점기에 중단됐다는 게 박 교수의 얘기다.

고려시대 동북현의 최씨 성을 가진 자가 증평을 앓자, 그의 부인이 남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산신령에게 기원해 산삼을 얻어 종자를 모후산에 심었다는 전설이 동북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산양삼 산업화에 박차= 화순군은 국제 산삼 심포지움을 통해 화순 모후산이 고려인삼의 시원지임을 학술적으로 입증한 데 이어 '산삼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고려인삼 종 복원 ▲채종포 단지 조성 ▲표준 재배기술 확립 ▲산양삼 품질관리 기준안 제정 ▲생산이력제 도입·시행 ▲공동 브랜드와 공동 마케팅을 통한 산양삼 산업화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군은 도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종자, 직파와 이식연수, 연근수 등 기본 정보와 출하일, 비료·농약 등 사용자제 관리, 가공이력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생산이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지난 2007년 10월 특허청에 '산죽(山竹) 산양삼' 실용신안권 상표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적극 지원받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임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올해 연말까지 산삼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는 2012년까지 동북면 유천리 일대 16ha에 조성 예정인 '산죽 산양삼 테마공원'도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군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이곳에는 고려인삼 개삼(開蔘)터, 산양삼 채종포 단지, 산양삼 박물관이 건립되고 농산물 판매장, 숙박 시설 등 기반시설과 휴양·체험, 소득 확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이같은 일련의 시나리오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경우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산양삼 프로젝트는 의료·생명과학·생태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디딤돌이 돼 화순을 '생명과 치유'에 관한 최적 지자체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화순군 산림소득과 직원들이 모후산 자락 산양삼 채종포 단지에서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산양삼은 반양반음(半陽半陰)을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한 그늘과 서늘한 바람 등 토양·수분·온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건설기계장비 담보대출

최저 연 7.5%

담보대출 : 최저금리 고액우대 적용
신용대출 : 신용도에 따른 무보증 무담보 가능

✓ 계약기간 내 상환시 용도수수료 면제
✓ 기간 내 분할상환 가능
✓ 담보비율 기준시세 80%까지 가능

핀옵시신용협동조합

사찰 담보대출 안내

최저 연 7.5%

담보대출 : 최저금리 고액우대 적용
신용대출 : 신용도에 따른 무보증 무담보 가능

✓ 계약기간 내 상환시 용도수수료 면제
✓ 기간 내 분할상환 가능
✓ 담보비율 기준시세 80%까지 가능

핀옵시신용협동조합